

退溪 李滉의 言行論에 대한 考察

- 『東學』 關聯 書冊을 中心으로 -

李 貞 和*

<목 차>

- | | |
|------------------|------------------|
| 1. 서론 | 3. 삶의 方法과 實踐의 美德 |
| 2. 삶의 目的과 人生의 價値 | 4. 결론 |

【요 약】

『東學』은 黃德吉의 『東賢學則』을 藍本으로 하여 제작된 것이다. 또, 책의 내용으로 볼 때, 20세기의 小學이라 할 정도로, 현대인이 지켜야 할 학문정신의 지침이 되기에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 책은 退溪의 13代孫인 陽田 李祥鎬에 의해 제작된 것이므로, 퇴계의 가르침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그 내용은 대체로 언행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며, 퇴계가 평소에 간찰을 통해 제자들에게 유가적 삶의 목표와 이와 관련된 실천방법을 적극적으로 일깨운 것들이기도 하다.

본고는, 嘉言과 善行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퇴계의 言行一致 내지는 知行合一을 통해, 그의 言行觀에 대한 전반적인 양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퇴계에게 知行合一이란 것은 일상생활속의 一舉手 一投足を “古人”, 즉 성인의 삶에 비추어 행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본론에서, 퇴계의 삶의 目的은 孔子의 가르침을 실행하는 것이며, 그

* 공주대 국어국문학과 강사

에 따른 人生의 價値는 학문하는 삶에 의미를 두고 있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그는 儒家的 삶의 方法에 충실하였고, 그의 言行은 마침내 實踐의 美德으로 완성되었던 바, 이는 儒者의 본보기이고 법식으로 계승되었다.

퇴계는 晩年の 老境에 이르렀을 때마저도, 스스로를 老大家라고 추앙될 것이 없는 존재라고 겸허하게 고백하면서, 오로지 허물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에 專心하리라는 실천 의지를 거듭거듭 가슴에 새기고 있을 따름이었다. 이렇듯 겸손한 삶에의 실천의지는 그를 존경하지 않을 수 없게 하며, 퇴계의 고결한 정신이 바로 선비문화의 精髓라는 점에 각성하게 된다.

1. 서론

退溪의 13代孫인 陽田 李祥鎬¹⁾에 의해 간행된 『東學』은 小學類 책들과 유사한 체제로 구성된 텍스트다. 즉, 이 책은 옛 성현들의 가르침을 嘉言과 善行으로 二分한 다음, 立教, 明倫, 敬身의 항목을 설정하여 그 내용을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특히, 퇴계의 가르침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게 되는 바, 이는 『東學』이 바로 그 藍本 『東賢學則』의 편찬자인 黃德吉²⁾의 제작의식을 계승하였다는 점과도 연관된다. 즉, 퇴계학파의 한 사람인 황덕길의 학문정신을 잇고 있음은 물론이다.

『東學』의 편찬자인 이상호는 20세기에 영남의 退溪家 뿐만 아니라,

1) 李毓源, 「吾家の 孝」, 『博約會消息』제5호, 2003년, 8월 28일, 참조.

2) 丁淳睦, 「〈東賢學則〉에 나타난 退溪의 教育觀」, 『民族文化論叢』제10집,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1989, 참조.

이 일대 班家の 학문정신을 진작시키는데 공헌한 분이였다. 그의 학문 역시 퇴계학맥에서 면면히 이어진 것이라는 사실은 다음의 家學圖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1. 退溪-李安道-李誠哲-李守淵-李世胤-李頤淳-李彙寧-李晚寅-李祥鎬-李源榮, 李家源, 李鎬奭, 金喆熙, 李國源, 申龜鉉³⁾
2. 退溪-李詠道-李世恒-李彙陽-李晚受-李炳鎬-李祥鎬⁴⁾

퇴계는 26세 때 <山居>시를 읊으며 그가 평생의 사업으로 행해야 할 일은 바로 산수자연 속에서 학문하는 것임을 밝힌 바 있다. 그는 다른 儒者들처럼 원래 兼善하면서 학문하는 것을 理想으로 생각하기도 하였으나, 그것이 혼탁한 당대의 현실에서는 이룰 수 없는 理想이란 것을 절감하게 되자, 자연스럽게 귀거래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한 가운데 그는 溫柔敦厚한 資稟으로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하여, 그의 가슴 속에 확고히 자리 잡은 곳곳한 선비정신⁵⁾의 근간은 후대에까지 선비들의 생활철학으로 열매 맺을 수 있었다.

퇴계의 삶의 방식과 자세를 지속적으로 견지하기 위해서, 그의 弟子와 後孫은 마침내 『東學』, 『東賢學則』같은 書冊을 제작하여 後學들에게 보급하였을 것이라 사료된다. 퇴계의 삶과 선비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애쓴 그분들의 공로가 바로 이 서책들이 지닌 사료적 가치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고는 삶의 질적 향상에 있어서 꼭 필요한 선비 정신의 생활화에 초점을 두고, 퇴계의 知行을 고찰해가는 것으로써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3) 李家源, 『退溪學及其系譜的研究』, 퇴계학연구원, 1989, 390쪽.

4) 앞의 책, 391쪽.

5) 『東學』. “退溪先生曰 朱子謂 惟平日莊敬涵養爲本領工夫一節 尤爲警切.”

2. 삶의 목적과人生的價值

퇴계는 명리를 탐하는 삶을 살지 않아야 孔子의 가르침을 실행하는 것이라 생각하였다. 『東學』에 따르면, 그는 진실로 義가 아니면 벼슬살이도 할 수 없음을 밝히기까지 하였다⁶⁾ 울곡은 퇴계의 생애를 회고하면서, 그의 삶을 “衣食은 겨우 유지하였으나 淡泊한데 맛을 들여 勢利와 紛華를 뜯구름같이 보았다”고 하였다⁷⁾ 이러한 그의 삶의 자세는 高峰의 『退溪先生墓碣銘』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 서두는 퇴계가 생전에 써둔 『自銘』을 그대로 옮긴 것인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면서부터 어리석기 짝이 없었고, 성장하여서는 병도 많았구나. 중년엔 어찌하다 배우기를 좋아하였으며, 늦게서야 어찌하여 벼슬을 받았던가?

학문은 구할수록 멀어지고, 벼슬은 싫다하여도 더욱 더 주어지는구나. 나아가는 길이 험해 물러나 은거할 마음 곧았네. 임금의 은혜 매우 부끄럽고 성현의 말씀 참으로 두렵구나.

산은 높이도 솟아 있고 물은 쉽 없이 흘러가네. (벼슬하기 전의) 처음 뜻을 그대로 좇으니 못 사람의 비방을 떨쳐 버린 듯하구나. 나의 회포 여기서 막히니 나의 패옥을 누가 만져주리? 나 스스로 옛 사람 생각하니 진실로 내 마음 부합되네.

앞으로 올 세상 어찌 알리? 현실도 알지 못하거늘. 근심 속에서도 즐거움 있고 즐거움 속에도 근심 있네. 자연의 조화를 따라 돌아가니 이 세상에서 다시금 무엇을 구하리오⁸⁾

6) 『東學』, “退溪先生曰 古之君子 明於進退之分者. 一事不放過 小失官守則 必奉身而亟去彼愛君之情. 必有所大不忍者. 然不以此而廢其去者 豈不以致身之地. 義有所不行則 必退其身 可以循其義.”

7) 『退溪先生言行通錄』卷1, 「遺事」.

8) 『退溪先生言行通錄』卷1, 「先生自銘」, “生而大癡 壯而多疾. 中何嗜學 晚何叨爵? 學求猶遜 爵辭愈嬰. 進行之路 退藏之貞 深慙國恩 晝畏聖言. 有山巖巖 有水源源. 婆娑初服 脫略衆訕. 我懷伊阻 我佩誰玩? 我思古人 實獲我心. 寧

이와 같이, 퇴계 자신이 墓銘을 지은 이유는 그의 장례식이 세상에서 떠들썩하도록 치러지는 것을 바라지 않아 단지 그의 碑石에 “退陶 晚隱眞城李公之墓”라고 쓰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그는 萬年 환로 생활을 달가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벼슬을 生의 우환이라고까지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관료로서의 화려한 장례식을 원한다면 이는 宦德에 의지하는 것이 되므로 이를 용납할 수 없었다.

위에서 퇴계는 오로지 학문하는 삶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 있으며, 이와 반대로, 벼슬하는 삶에 대해서는 별반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 그는 忠信의 마음⁹⁾으로 살아갔던 만큼, 퇴계가 추구한 인생의 방향은 애국심과 상반되지 않는 것이며, 성현의 가르침이 그 지표임을 알 수 있다.

사람의 자품은 각기 천차만별이어서 같지 않다. 그들이 공부를 하는 초반기에 있어서도, 똑똑한 사람은 남들에 비해 학업성취가 빠르게 진전되며, 우둔한 사람은 남들에 비해 뒤떨어지게 된다.

처음에는 공부에 정성을 다하다가도 나중에 게을러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갑자기 공부를 중단하다가도 번번이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공부 못하는 병통을 마음속에 지닌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공부 못하는 병통이 마음 밖에 있는 사람도 있으니, 이와 같은 사람들을 일일이 이루 다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다. 공부에만 전심전력함으로써 깨닫게 되는 경지에 이르지도 못하고서 자기 학문의 완성이 있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진실로 죄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¹⁰⁾

퇴계는 孔孟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유형을 세 가지로 인식하였다. 上

知來兮 不獲今兮. 憂中有樂 樂中有憂. 乘化歸盡 復何求世?”

9) 『東學』, “退溪先生曰 論語中 主忠信三字 最爲切己.”

10) 『東賢學則』, “退溪先生曰 人之資稟 有萬不同. 其始學也 銳者凌躐 鈍者滯泥. <…> 有始懇而終忽者 有旋廢而頻復者. 有病在裏者 有病在表者. 若此者 不勝枚舉. 其不能專心致知 以期於有成者 固不能無罪.”

智·中人·下愚가 바로 그것이다. 그는 이것에 대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의 설명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上智의 사람은 맑은 氣(하늘의 氣)와 순수한 質(땅의 質)을 타고난 사람으로, 그는 天理에 대해 알고 또 이를 잘 실천하여 하늘과 합일하게 된다.

둘째, 中인의 사람은 맑은 氣와 雜駁한 質, 또는 탁한 氣와 순수한 質을 타고난 사람이다. 그는 天理에 대해 충분히 알지만 실천이 부족하다든지, 그것에 대해 잘 알지 못하나 실천을 철저하게 할 경우 하늘과 합일하기도 하고, 어긋나기도 한다.

셋째, 下愚의 사람은 탁한 氣와 雜駁한 質을 타고난 사람이다. 그는 天理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실천하지도 못하여 하늘과 완전히 어그러지는 사람이다.¹¹⁾

퇴계가 이와 같이 세 유형을 제시한 것은, 그는 세 유형에 共히 갈 수 있는 인생의 통로를 일러준다면, 궁극적으로 성현의 길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퇴계가 인도하는 인생의 통로는 곧 학문의 길이다. 여기에서 학문이란 다름 아닌 爲己之學을 일컫는다.

공부는 배운 것을 익히는 데에 가치가 있고, 익힘은 능히 마음을 하나로 집중할 때, 지금 바야흐로, 공부하고 또다시 익히는 그 학문의 나아가야 할 방향이 순조로워진다.

마땅히 안회와 같이, 예가 아니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움직이지도 말아야 한다. 마땅히 증삼과 같이, 용모를 움직임에 있어서는 안색을 바르게 하고 기품을 언어에 나타내야 한다!¹²⁾

11) 『退溪先生文集內集』卷41, 「雜著」(天命圖說).

12) 『東賢學則』. “退溪先生曰 學貴於習 習能專一 時方好其習之方. 當如顏子 非禮勿視聽言動. 曾子 動容貌 正顏色 出辭氣處.”

위기지학은 수양을 위한 학문이다. 퇴계에게 있어서 학문은 출세의 수단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이와 반대로 爲人之學은 俗人の 처세방식에 부합하는 것이라 하겠다. 결국 天理를 제대로 알고 이를 실천하는 삶은 수양하는 가운데 완성되는 것이다.

君子の 학문은 ‘爲己’일 따름이다. 이른바 ‘爲己’라 함은 장경부가 말한 ‘人爲가 없이 그러하다’는 것이다. 가령 깊은 산 무성한 숲 속에 한 그루 난초가 있어서 종일토록 향기를 내뿜으면서도 스스로 향기로움을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君子の ‘爲己之學’에 꼭 맞는 것이다!¹³⁾

퇴계는 비록 中人和 下愚의 사람들에게 탁한 氣와 雜駁한 質이 있더라도 위기지학을 충실히 하여 잘못을 고치려는 변화를 거듭한다면 그들 또한 고결한 삶을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퇴계는 특정인만이 이상적 인간형 즉, 성인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下愚일지라도 스스로 본성을 회복하려 노력한다면, 성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것은 그의 인간에 대한 애정과 연민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聖學”을 완성하는 것이 그의 궁극적 목표여서, 학문에 전념하는 것이 평생의 사업이므로, 그에게 문예활동은 한갓 末技¹⁴⁾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나, 퇴계는 문학의 효용적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 文以明道에 충실하려 하였다. 문장으로 도를 밝게 드러낸다는 것이 그의 문학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제자 율천 조목이 말씀드리기를, “心行이 바름을 얻지 못하면 비록文學이 있다 한들 무엇에 쓰겠습니까?” 하였더니, 선생은 “文學을 어찌

13) 『退溪先生言行錄』卷1, 「教人」. “先生曰 君子之學 爲己而已. 所謂爲己者 卽張敬夫所謂無所爲而然也. 如深山茂林之中 有蘭草 終日薰香而不自知其爲香 正合於君子爲己之義 宜深體之.”

14) 『退溪先生文集內集』卷49, 「與鄭子精」. “夫詩雖末技 本於性情 有體有格 誠不可易而爲之.”

가히 소홀히 여길 수 있겠는가? 글을 배우는 것은 마음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니, 이 또한 『論語』首篇(行有餘力, 則以學文)의 註에서 제자의 직분을 논한 뜻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였다.¹⁵⁾

그가 전념한 학업은 “爲己之學”이 核心이었으므로 항상 “敬”의 자세로 일관해야 하고 바른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인욕을 억제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었다. 퇴계에게 문예활동은 학업에 비해 그 무게가 가벼워 “餘技”라 하였지만, 문예활동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다. 문예활동에 빠져 본말이 전도되는 것을 경계하였을 뿐, 문예활동의 효용적 가치를 폄하하지 않았다.¹⁶⁾

『東學』에서도 보이는 바와 같이, 그는 閑居養疾의 餘暇에 무릇 性情에 느낌이 있을 때마다 詩를 제작하게 된다.¹⁷⁾ 또, 퇴계는 詩書를 배우지 않으면 理學에 이를 수 없다고 하여, 詩書 없이는 理學의 이치 또한 체득할 수 없음을 강조하기도 하였다.¹⁸⁾

시를 읊으며

吟詩

詩不誤人人自誤 시가 사람을 그르치지 아니하고 사람이 스스로 그르치지
興來情適已難禁 興이 오고 情이 가면 참기가 어려운 걸.
風雲動處有神助 風雲이 이는 곳엔 신의 도움 있고 말고
董血消時絕俗音 董血이 녹아날 때 속된 소리 끊어지네.

15) 『退陶先生言行通錄』卷2. “余因率爾而對曰 心行不得正 雖有文學 何用焉. 先生曰 文學豈可忽哉. 學文所以正心也 是亦論語首篇註朱夫子論弟子職之意也.”

16) 『東賢學則』. “詩雖末枝 本於性情 有體有格 誠不可易而爲之. 言或至於放誕義或至於彫雜 信口信筆 習熟不已 尤有妨於謹出言 收放心之道.”

17) 『東賢學則』. “退溪先生有言曰 吾人有感於性情者 每發之於詩.”

18) 『東賢學則』. “退溪先生曰 孔子以下爲二南爲牆面 韓公以下動詩書爲腹空. 自古 安有不學詩書 底理學?”

栗里賦成眞樂志 栗里的 陶淵明은 짓고 나면 마음 진정 후련했고
 草堂改罷自長吟 草堂의 杜甫는 고친 뒤면 으레 길게 읊었다오.
 緣他未著明明眼 제각기 밝게 밝게 착안을 못한 때문
 不是吾緘耿耿心¹⁹⁾내 어찌 반짝이는 이 마음을 함봉하리?

이 시를 통해 특히 만년의 그의 시가 성장한 많은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게 된다. 삶의 깊이로 충만해진 그의 노경은 산수의 풍광 앞에서 저절로 興과 情이 생기기 때문이다. 風雲이 이는 곳에서는 天佑神助하듯 시가 잘 지어지고, 葷血이 남지 않은 맑은 마음일 때 비로소 맑은 시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다. 頸聯에서는 그의 작시 성향을 알 수 있는데, 그가 본받고자 하는 시인으로 陶淵明과 杜甫를 손꼽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도연명의 歸去來와 두보의 憂國愛民에 대해 익히 알고 있었으므로, 이들의 감동적인 시작을 예로 든 것이다.

<...> 책을 덮고 막대를 이끌고 나가 軒에 다다르고 연못을 구경하고 단에 오르고 마을을 찾으며 園圃를 돌아 약초 심고 숲을 뒤져 꽃도 따며 혹은 돌에 앉아 샘물도 통겨 보고 대에 올라 구름을 바라보며 혹은 못물 위에서 고기를 구경하고 배안에서 갈매기와 서로 친하기도 한다.

이렇게 마음이 쏠리는 대로 따라가서 소요하고 배회하며 눈길이 닿는 대로 흥이 발동하고 경치를 만나면 취미를 이루다가 흥이 다하여 돌아오면 온 집이 고요하고 圖書는 벽에 가득하다. <...>²⁰⁾

그에게 있어서 산수자연은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생활의 기반이 될 만큼 필수적인 대상이다. 그에게 학문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가치를

19) 『退溪先生文集內集』卷3, 『和中間居 二十詠』其四.

20) 『退溪先生文集內集』卷3, 『陶山雜詠并記』. “<...> 撥書攜筇而出 臨軒翫塘 陟壇尋社 巡圃蒔藥 搜林擷芳 或坐石弄泉 登臺望雲 或磯上觀魚 舟中狎鷗. 隨意所適 逍遙恁伴 觸目發興 遇景成趣 至與極而返 則一室岑寂 圖書滿壁. <...>”

지니는 것이다. 위의 글에서는 학문과 자연이 그의 삶에 있어 긴밀한 틀임을 나타내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산수자연에서 학문에 심취하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의미임을 보여주고 있다.

전연한 바와 같이, 뜻있는 일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제대로 배우고 올바르게 알아야 가능한 것이다. 퇴계의 삶의 목표는 성인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는 聖學을 배우고 익혀 일상생활 속의 사소한 일 처리에까지 성인을 법받아 생활할 수 있었다.

3. 삶의 方法과 實踐의 美德

유가적 삶의 인식은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 표류하는 사람에게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유학에서는 이러한 삶의 인식이 퇴계를 통해 구현된다. 『退溪先生言行錄』을 보면, 그는, “鳶飛魚躍(솔개는 하늘에 날고 고기는 물 속에 뛰는 것과 같은 자연의 조화로운 이치)처럼, 사물의 자연스러움이란 이 같은 이치이다. 솔개가 하늘로 날고, 고기가 물에서 뛰는 것은 억지로 힘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가 그러한 것이다. 잠시라도 하여야만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 이것은 理의 자연스러움이 아니다”는 말로 生의 이치를 설명하였다. 그의 생각은 사변적인 것에 그치지 않았으며, 그의 언행은 유자의 본보기이고 법식이 되었다.

남들과 응대할 때에 있어서, 허망하여 가장 읽기 쉬운 것은 오로지 말이 그러할 뿐이다. 따라서 성인께서 남을 가르치실 때에는 신의로써 말의 원칙을 삼으라고 말씀하셨으니, 이처럼 신의는 성실과 한 이치인 것이다. 그러므로 성실함을 지키는 것은 마땅히 스스로 말을 망령되지 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다²¹⁾

21) 『東賢學則』. “退溪先生曰 人有應接 最易失於虛妄者 惟言語爲然. 故聖人教

퇴계는 “古人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뵈 / 古人을 못 봐도 녀던 길 알푼 | 잇는 | / 녀던 길 알푼 | 잇거니 아니 녀고 엇덜고”²²⁾라는 시조를 지어 이러한 삶의 방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일깨워 주었다. 퇴계에게 知行合一이란 것은 일상생활속의 一舉手 一投足を “古人”, 즉 성인의 삶에 비추어 행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로부터 경대부의 벼슬은 백성을 덕행과 도예로써 이끌어 형벌로 따르지 않음을 규탄하고, 선비 된 자 또한 반드시 집에서 심신을 닦고 고을에 그 이름이 드러난 다음에야 비로소 나라에 높이 천거되었다. 효, 제, 충, 신은 사람이 행해야 할 도의 큰 근본이요, 집과 향당은 진실로 그것을 행해야 할 곳이다. 선생의 가르침은 이러한 사실을 소중하게 여겼으므로 그 법을 세운 것이 이와 같았다. 후세에 이르러 법제는 비록 폐하였다 할지라도 몇몇한 윤리의 법칙은 스스로 같으니, 어찌古今의 마땅함을 참작하여 권면하여 따르지 않으리오.²³⁾

퇴계의 삶은 “마음의 다스림”을 골자로 하여 수양해 간 것에 그 의미가 있다. 그는 마음이라는 형이상학적 관념의 영역을 볼 수는 없으나, 그것에 의해 감정을 표현하고 행동하는 개체가 바로 인간이니 만큼 바른 마음을 지녀야 바르게 행동할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퇴계는 바른 마음이 생기는 원리와 바른 마음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精緻하게 이론화하여 『聖學十圖』를 제작하였다. 그는 朱子の ‘敬’ 개념을 수용하여 마음을 다스려 仁을 실천하는 방법의 기본으로 삼았다²⁴⁾ 스스로

人 以信爲言語之則 信之與誠 一理也. 故存誠 當自不妄語始.”

22) 『退溪先生文集內集』卷43, 『陶山十二曲』(陶山六曲之二) 其三.

23) 『東賢學則』. “退溪先生曰 古者卿大夫之職 導民以德行道藝 而糾之以不率之刑. 爲士者 亦必修於家著於鄉 而後得以賓與於國. 孝悌忠信人道之本 而家與鄉黨 實其所行之地. 先生之教 以是爲重 故其立法如此. 至於後世 法制雖廢 而彝倫之則自若也. 惡可不酌古今之宜 而爲之勸懲也哉.”

24) 『東學』. “敬是入道之門 必以誠然後 不至於間斷.”

자신을 통제하는 중심에 ‘敬’을 두고, 이를 통해 마음의 집중과 각성을 실현함으로써 인격을 聖의 경지에 이르고자 했다²⁵⁾

그의 겸손한 삶의 실천의지는 산수자연을 영달의 수단으로 여기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의 집은 영원히 여기밖에는 없다는 생각이었으므로 촌옹처럼 자연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였던 것이다. 퇴계는 스스로 ‘草野愚生’²⁶⁾임을 자처하여, 자신 또한 대자연의 범주에서 보면 老人家라고 추앙될 것이 없다고 겸허하게 고백하게 된다. 허물없는 사람으로 살아야 함을 일깨우는 퇴계의 가르침²⁷⁾도 이와 관련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사람은 마땅히 허물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허물이 없기를 추구할 수는 있어도, 응당 허물이 없는 가운데에서 허물 없기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²⁸⁾

퇴계에 의하면, 질병으로 노쇠해지는 것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점은 마음의 허물이 있는 것이다. 퇴계에게 바른 마음이 생기는 원리는 主理的 사유에 입각해 있다. 마음이란 본래 理와 氣의 승인 것이다. 내면 세계의 법칙으로서의 理가 기질의 영향을 받지 않고 본연의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맹자가 말한 四端인데, 이른바 측은해하는 마음은 仁의 단서이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은 義의 단서이고, 사양하는 마음은 禮의 단서이고, 是非하는 마음은 智의 단서가 된다는 것이다.

本然之性은 理의 작용이 강해 四端에 연결되고, 氣質之性은 氣의 작용이 강해 七情(喜·怒·哀·懼·愛·惡·欲)에 연결된다. 七情은 본래

25) 琴章泰, 「퇴계의 心개념과 修養論」, 『聖學十圖』와 퇴계철학의 구조, 서울대출판부, 2001, 177쪽.

26) 『退溪先生文集內集』卷43, 「陶山十二曲」(陶山六曲之一) 其一.

27) 『退溪先生文集內集』卷43, 「陶山十二曲」(陶山六曲之一) 其二.

28) 『東賢學則』. “程子曰 人當於有過中求無過 不當於無過中求有過.”

선한 것이지만 악으로 흐르기 쉽기 때문에 발할 때 절도에 맞아야 바른 마음을 잃지 않게 된다. 퇴계는 四書와 같은 책만이 이러한 理學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를 공부하는 것이 이에 매우 긴절한 것이라 강조하였다. 퇴계의 이러한 생각은 공자의 언행을 본받은 것인데, 다음의 글에서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詩를 배우지 않느냐? 詩는 感興을 자아낼 수 있고, 詩로써 풍속의 淳厚함을 살필 수 있고, 詩로써 여럿이 모일 수 있고, 詩로써 원망할 수 있으며, 가까이는 아버이를 섬기는 일에서, 멀리 임금을 섬기는 일, 鳥獸와 草木의 이름에 이르기까지 많이 알게 된다?²⁹⁾

『論語』에는 孔子가 강조하는 시의 기능적 측면이 잘 나타나 있다. 공자의 詩觀에 의하면, 시를 통해 인간의 도리를 터득하여 자신의 삶을 바르게 실천궁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學詩는 성정 순화의 기본이 되어 유가들의 수양 방법의 하나로 제시된 것이기도 하다. 퇴계 또한 詩經을 읽는 것이 心學에 필요하며, 그것을 읽지 않는다면 큰 잘못이라 여겼다.³⁰⁾ 詩經을 읽고 성정을 함양한다는 데에 의의를 두기 때문이다.

무릇 詩가 末技이기는 해도 性情에 근본을 두는 것이며, 體와 格이 있어 진실로 쉽게 여겨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³¹⁾

퇴계의 문예활동은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있으며, 위기지학에 부합한 뜻의 高下와 관련되어 있다. 퇴계는 당시 과거

29) 『論語』, 「陽貨」. “子曰 小子何莫學夫詩? 詩可以興 詩可以觀 可以羣 可以怨 邇之事父 遠之事君 多識於鳥獸草木之名.”

30) 『退陶先生言行通錄』卷1.

31) 『退溪先生文集內集』卷35, 「與鄭子精琢」. “夫詩雖末技 本於性情 有體有格 誠不可易 而爲之.”

가 求祿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게 되었고, 심지어 “한 번 문인이라 불리우면 족히 볼 것이 없다(一號以文人 不足觀)”고 하여 문인으로 불리우는 것까지도 거부하였다.

심지어 퇴계는 시에도 시의 理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存養의 공부없이 직출하는 詩情은 지양한 반면에, 省察의 공부 속에서 여과된 시정을 표출하였다. 따라서 퇴계의 詩觀은, 시는 곧 그 사람과 같다는 것이다.

義路如砥坦且明	義의 길은 숫돌 같아 坦然 분명한데
一昏心燭故難行	心燭 한 번 어두워지면 그 길 걷기 어렵구려.
欲知大寐如醒處	큰 잠에서 깨어나는 그 곳을 알려면
唯在研精積久生 ³²⁾	오래오래 쌓고 쌓은 研精에 있느니라.

儒者の 도리는 매사가 그렇듯 義로써 가지런히 하고, 그 시비를 분별하며 사는 것이다. 이 시는 行義(바른 길을 행함)할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 시를 통해 퇴계는 행의에 앞서 마음의 燭을 밝혀야 한다고 여겼다. 그는 敬을 心燭으로 삼아 위기지학을 연마하였으며, 心燭이 있어야 마음 한 구석에 자리한 사리사욕의 웅덩이를 볼 수 있고, 이것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야 성학의 길을 갈 수 있다고 보았다.

예를 실행에 있어서는 바깥을 위하는 것만이 아니니, 의관의 단정, 음식의 절제, 다른 사람에 대한 읍양, 조정예의 진퇴하는 원칙일 따름이다.

옛 성현은 예를 알게 되면 가히 하루라도 예법대로 행하기를 그만두지 않았다. 따라서, 옛 성현의 말씀에 이르기를, “한 번 예법을 잃으면 오랑캐가 되고 두 번 예법을 잃으면 금수가 되느니라.” 하였으니, 어찌 매우 두려워하지 않으리오?³³⁾

32) 『退溪先生文集內集』卷5, 「明義齋」.

33) 『東學』券之三, 20쪽. “退溪先生曰 禮之行也 不外乎. 衣冠之飾 飲食之節 揖讓進退之則而已. 古人知禮之 不可一日而廢也 故其言曰 一失則爲夷狄 再失

그는 스스로 검박하였으나, 타인에게 후덕하여 결코 박정하지 않았다. 『退溪先生言行通錄』에 의하면, ‘그는 사람을 대할 때에는 貴·賤·賢·愚를 가리지 않고 예를 다하였다. 아무리 미천한 사람이 오더라도 반드시 뜰에 내려가 맞이하였으며, 자신이 덕과 지위가 높다고 하여 한 번도 자존하지 않았다. <…> 손님이 오면 귀천을 가리지 않고 인정과 정성을 다하였다³⁴⁾고 기록하고 있다. 퇴계의 삶이 인간미를 느끼게 하는 것은 그가 온유둔후한 성정을 지녔기 때문이다. 퇴계는 자신과 교유한 이들에게 이 같은 온유둔후의 성정을 베풀었을 것이다.

이러한 그의 자세는 朱子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朱子에 의하면, 敬은 義와 연결되므로 敬할 때는 공경의 마음이 짐뿐만 아니라, 끈고 공정한 마음이 짐도 지녀야 하는 것이 된다.³⁵⁾

옛 선비를 보건대, 그 곤궁함이 더욱 심할수록 그 마음을 더욱 가다듬어, 그 절조가 더욱 빼어났다. 만일 한 번 괴롭거나 마음에 거슬리는 것으로 인하여 문득 자기가 지키던 것을 잃어버리면 선비라고 할 수 없다³⁶⁾

퇴계의 知는 이러한 성현의 교훈적인 말씀이고, 行은 스스로의 도덕적인 행실이라 하겠다. 儒者는 아무리 태평무사한 시절에 임했을지라도 항상 우환의식을 가지고 전전공공해야 함을 철칙으로 삼는다. 幸祐의 기쁨을 자제케 하는 비장한 心思 역시 儒者에게는 내재된 것이었다. 섭기로 말하면 愚夫도 알며 하고 어렵기로 말하면 聖人도 못다 하시는

則爲禽獸 豈不深可懼哉.”

34) 『退溪先生言行通錄』卷1, 「言行通述」. “無貴賤賢愚 無不盡其禮. 客至雖微皆下階迎之 未嘗以老貴而自尊也. <…> 賓客之來 不問貴賤 必設酒飯 盡其情款 雖家用不足亦然.”

35) 『朱子語類』上, 卷44, 「論語26·憲問」(賀孫錄). “此心常卓然公正 無有私意 便是教 有些子計較 有些子放慢意思 便是不敬.”

36) 『東學』券之三, 17쪽. “觀古之士 其志愈勵 其節益奇. 若因一苦拂 而遂喪其所守 則不可謂之士矣.”

復性化道에 침잠하여 생활하는 것³⁷⁾ 유자의 삶을 보여준다.

그가 <吟詩>에서 “시가 사람을 그릇치지 아니하고 사람이 제 스스로 그릇되지(詩不誤人 人自誤)”³⁸⁾라고 읊었듯이, 시는 곧 그 사람과 같아서,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다고 역설한 바 있다. 즉, 수양의 深淺에 따라 인격 또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라 할 수 있다.

4. 결 론

『東學』은 黃德吉의 『東賢學則』을 藍本으로 하여 제작된 것이다. 또, 책의 내용으로 볼 때, 20세기의 小學이라 할 정도로, 현대인이 지켜야 할 학문정신의 지침이 되기에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 책은 退溪의 13代孫인 陽田 李祥鎬에 의해 제작된 것이므로, 퇴계의 가르침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그 내용은 대체로 언행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며, 퇴계가 평소에 간찰을 통해 제자들에게 유가적 삶의 목표와 이와 관련된 실천방법을 적극적으로 일깨운 것들이기도 하다.

본고는, 嘉言과 善行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퇴계의 言行一致 내지는 知行合一을 통해, 그의 언행관에 대한 전반적인 양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퇴계에게 知行合一이란 것은 일상생활속의 一舉手 一投足を ‘古人’, 즉 성인의 삶에 비추어 행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본론에서, 퇴계의 삶의 目的은 孔子의 가르침을 실행하는 것이며, 그에 따른 人生의 價値는 학문하는 삶에 의미를 두고 있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그는 儒家的 삶의 方法에 충실하였고, 그의 言行은 마침내 實

37) 鄭雲采, 『退溪 漢詩 研究-性理學的 思惟 構造의 詩의 實現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7, 105면.

38) 『退溪先生文集內集』卷3, 「吟詩」.

踐의 美德으로 완성되었던 바, 이는 儒者의 본보기이고 법식으로 계승되었다.

퇴계는 晩年의 老境에 이르렀을 때마저도, 스스로를 老大家라고 추앙될 것이 없는 존재라고 겸허하게 고백하면서, 오로지 허물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에 專心하리라는 실천 의지를 거듭거듭 가슴에 새기고 있을 따름이었다. 이렇듯 겸손한 삶에의 실천의지는 그를 존경하지 않을 수 없게 하며, 퇴계의 고결한 정신이 바로 선비문화의 精髓라는 점에 각성하게 된다.

주제어 : 東學(Donghak), 儒家的 삶의 목적(purpose of Confucian mode of living), 言行(language and action), 嘉言과 善行 (good sayings and conduct)

참고문헌

『論語』

『朱子語類』

『退溪全書』

『東賢學則』

『東學』

琴章泰, 『聖學十圖』와 퇴계철학의 구조, 서울대출판부, 2001.

李家源, 『退溪學及其系譜의 研究』, 퇴계학연구원, 1989.

李毓源, 「吾家の 孝」, 『博約會消息』제5호, 2003년, 8월 28일.

李貞和, 『退溪 李滉의 詩文學 研究』, 보고서, 2003.

丁淳睦, 「〈東賢學則〉에 나타난 退溪의 教育觀」, 『民族文化論叢』제10집,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1989.

鄭雲采, 『退溪 漢詩 研究-性理學的 思惟 構造의 詩的 實現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7.

<Abstract>

A Study on the theory of value is based on the language
and action of Toegye Lee Hwang

Lee, Jeong-Hwa

The above discussion could be concluded as follows.

Donghak(東學) was produced by Lee Sang Ho, having based on original text, such Donghyeonhakchik(東賢學則) as benefit Confucian scholars.

In accordance with Donghak(東學), Toegye was awakened scholars to the purpose of their Confucian mode of living.

Toegye suggested the best way of a true human life, giving his view about the theory of value is based on the language and action, setting an example.

It follows as a logical consequence that the purpose of his mode of living is as making Confucianism a practice to do.

Therefore, He was practiced what his preach, by means of good sayings and conduct.

이정화

대구시 북구 복현2동 주공아파트 118동 505호

공주대학교 강사

전화: 053-952-1339(집) 011-750-1268

e-mail: jeonghwa@sookmyung.ac.kr

이 논문은	2005년	4월	30일	투고하여
	2005년	5월	30일까지	심사완료하여
	2005년	6월	30일	간행함